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12월 3일(일) 대림절 첫 주일, 제직회
- 12월 17일(일) 나라주일
- 12월 24일(일) Teestube에서 예배
- 12월 25일(월) 성탄절, 14시 예배, 세례식 & 성찬식, Mutterhauskirche
- 12월 31일(일) 송년주일, 은퇴식
- 1월 1일(월)-6일(토) 신년새벽기도회, Teestube 믿음방
- 집사, 권사 피택자 훈련: 11월 27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 세례교육: 매주 수요일 20시 30분 온라인, 피교육자-윤영숙, 황선우, 조세하
- 교회창립 40주년 기념 말씀일기문집 원고제출자: 장년-권순아, 김성희, 김영희, 김평임, 김호정, 박승은, 배진우, 백윤정, 서민규, 서정인, 석호선, 손교훈, 손재호, 송인선, 오수향, 오지훈, 우선화, 유근임, 이선영, 정수연, 최성호, 최수정, 한상철, 허지은. 어린이-김희원, 두리, 미노, 박하은, 배지열, 배지울, 이하나, 이하임, 정원, 정이나
- 자유나라모임: 12월 1일(금) 19시 30분 최성호-이선영 님 가정
- 청년회 신입원: 회장-김병원, 부회장-이유하
- 방문: 허승은                      • 귀가: 김학순, 김종권
- 생일: 김미정, Thomas Gamerschlag
- 스펙트럼교회 창립10주년 감사예배: 오늘 15시

◆ 말씀일기 일정

일/욘21:1-16      월/욘21:17-34      화/욘22:1-30      수/욘23:1-17  
 목/욘24:1-25      금/욘25:1-26:14      토/욘27:1-23      일/욘28:1-28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13독

◆ 예배위원 안내 ◆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예배기도	이미전	한상철	김호정	민경웅
안내위원	예배부			
헌금위원	배진우, 유근임	오지훈, 이선영		
애찬위원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밥상 여섯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2:00 Teestube 믿음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http://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	66장 .....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다	함	께
성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80번 .....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	452장 .....	다	함	께
기도/Gebet .....		이미전	교우	
찬양/Chor .....	아침 햇살 비칠 때 .....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창세기 45:1-15 .....	인	도	자
설교/Predigt .....	<b>요셉의 영성</b> .....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	455장 .....	다	함	께
봉헌/Kollekte.....	시선 .....	황선우	교우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 서민규 집사의 말씀일기 욥기 16:1-17 '고통 가운데 바라볼 것' ◀

욥은 세상 지혜로운 그의 친구들을 향해 섭섭함을 토로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들같은 처지였으면 그런 말을 했을거라는 놀라운 이해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웬지 모르게 나는 다윗을 떠올렸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도 순탄하지않은 않았다. 아니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그의 삶가운데서 나온 고백들, 시편중에서도 고난중에 쓴 시들을 찾아보았다. 대충 훑어보는데도 의외로 아픔을 호소하는 시들이 많았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바라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다.

수국을 키워보려고 이 식물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 단 한번도 끝까지 키우는데 성공한 적은 없지만 내가 알아낸 바는 이렇다. 늦봄과 초여름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운 수국은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냥 잎파리만 무성한 나무가 된다. 그마저도 날씨가 추워지면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다음해에 또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화분을 집에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추위에 한번씩 노출시켜줘야 꽃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욥의 나중도, 다윗의 나중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나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고난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시편 62편 8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의 이 대목에서는 욥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살짝 오버랩되기도 한다. 고난 중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